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정일 교수

(동국대 영문과)



왜 제일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고백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 가치를 전복하고 변형시키려고 한다. 교회 밖 사람들은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만 눈여겨보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 기독교의 가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기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변엔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위기다. 프랑스 작가 폴 부르제는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요즘 기독교가 약해져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것은 성경의 핵심가치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라고 믿는다면,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이 소중한 것은 생명의 메시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가치들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내 성공,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내 자아는 죽게 된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고백이다.

복음서에 보면 저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누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눅 5:28).

루터가 가져온 세 가지 선물

무명의 수도사였던 그가 단 15일 만에 유럽을 각성시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순간이 루터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터가 복음을 깨달은 뒤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루터는 구원은 침례나 성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발견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멀리 있고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멀리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자 루터는 세 가지 원리, 말씀에 대한 권위, 오직 은혜, 만인제사장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신앙이 깊었던 중세시대, 죄는 모든 이의 삶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중세 사람들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신부의 성례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회는 세상을 세속적인 공간과 신성한 공간으로 구분 지었다. 그러자 죄가 세상에만 속한 것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했다.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단번에 천국에 갈만큼 자신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면죄부가 팔렸다. 면죄부 판매는 신성한 거래로 불렸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선 언제나 교황의 깃발이 나부꼈다. 죄는 돈이 되는 장사였다.

1517년 루터는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였다.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다. 그것은 루터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던지신 폭탄이었다”고 요약한다. 종교개혁은 신약시대 이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복음회복 운동이었다. 루터로 인해 유럽이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유럽은 가톨릭뿐이었다. 시민들은 교황에게 지옥문을 열고 닫을 권위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외쳤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한 마디로 복음의 재발견이었다.

교회사에서 교황의 파워는 엄청났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카노사의 굴욕은 파문의 위력을 보여준다. 1077년 황제도 파문을 받아 눈발에 맨발로 사흘간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다. 교황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오미 나오미의 『십자군 이야기』에 그 자세한 내막이 실려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열쇠의 기본 의미는 접근을 통제하는 권한이 아니다. 즐거이 드나드는 것이다. 드나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기에 천국에 갈 생각만 하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종교 기업가 vs 파트타임 목사

미국에선 ‘종교 기업가’란 표현을 쓴다.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목회에 성공하여 정상에 오른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올드리지는 『신의 귀환』이란 책에서, 그렇게 썼다. 저자들은 특히 T.D. 제익스에 주목한다. 스스로를 비숍으로 부르는 제익스는 텍사스 주 달라스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The Potter's House)으로 불리는 대형교회 담임목사이다.

비숍 제익스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학교 중퇴 후 집안을 도와야 했다. 십대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

했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최면술을 거는 듯한 설교 스타일과 대중 친화적인 메시지로 교회를 급성장시켰다. 그가 설교 중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What do you want?’ 그럼 청중이 답한다. ‘Money, money, money.’ 랩 하듯이 서로 주고받는다.

그의 설교는 탁월하다. ‘최면술에 걸린’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설교를 조금만 듣다 보면 저절로 메시지에 빠져들게 된다. TV 카메라에 가끔씩 비춰지는 성도들을 보면, 일어나 엉덩이춤을 춘다. 덕분에 이제는 교인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젠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졌다. 벤투리를 몰고 다닌다. 개인 소유의 제트기도 있다. 웬일인지 출판경기가 하락했어도 그의 책들은 잘 팔린다.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별난 사람이 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렌(Len) 목사는 작은 교회를 14년간 섬겼다. 하지만 사례비가 너무 적어 주유소에서 일해야 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렌 코스터(Len Koster) 목사 부부가 보여준다. 이 부부를 보면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삶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상관관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이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런 삶은 고달프다.

요즘 목회자들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기보단 어떤 것이 잘 통하는지 묻는다고, 존 맥아더 목사는 개탄한다. 그가 쓴 『진리 전쟁』은 읽는 내내 불편했다. 그가 진단하는 기독교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변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성경을 신뢰하거나 교리를 지키기보단, 세(勢) 불리기에 바쁘다. 우리 역시, 제자화 교육이 뛰어났음에도 그 흐름이 제자 만들기에서 교회성장의 동력으로 바뀐 것이 못내 안타깝다.

종교개혁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 역사학자로 중세여성을 연구하는 베스 앨리슨 바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바 교수는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바 교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아쉬워 한다. 주목을 받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실감난다. 루터,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멜란히톤, 틴데일, 에드워드 6세, 존 폭스, 라티머와 리들리, 크랜머, 녹스, 썬빙글리, 칼빈 모두 남성이다.

종교개혁의 주역은 모두 남성이고, 신학적, 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개혁을 주도했다. 반면 여성들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된다. 새찬송가 164장은 「예수 부활했으니」이다. 찬송가를 펴면 연도가 두 개 적혀 있다. 1739년과 1708년이다. 1708년은 이 찬송이 처음 인쇄된 해를 말한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찬송을 알고 있지만, 이 찬송이 한때 여성들을 사도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1749년에 개사가 이루어져 2연과 3연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후 재발견되었으나, 가사에서 부활을 처음 발견한 여성들을 적은 가사가 바뀌었다.

여성학자 키르시 스티에르나는 500주년을 기념

한 『루터의 정수』 공동 편집자이다. 그녀는 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이 여성들에겐 가부장제를 압박했고, 이것은 여성들의 종교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여성과 종교개혁』에서 복음적인 신학이 되었어야 할 종교개혁이 여성들에게 신학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국한시켰다고 아쉬워한다. 이것은 설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1350-1750년까지 400년간 영국 교회에서 행해진 설교문을 분석했더니, 설교엔 남성 중심의 언어와 형제라는 표현들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성경은 마지막 시대 배교가 왕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한 기적 35가지를 기록한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실 땐 모두 돌아섰다. 제자란 사람들조차 말이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맥아더 목사는 거짓 종교지도자는 위장에 능하다고 경고한다. 교회시대 이후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서 나왔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가 진리를 공격한다. 사탄은 복음이 뿌러지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쭉정이를 뿌리는 것 같다.

500년 전 독일은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다. 하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독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500주년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500년 전의 가톨릭보다 지금의 개신교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신자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아서,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도 길을 잃은 것 같다. 지금도 면죄부가 팔린다.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걱정 끝이란 값싼 복음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통계에 보니 지난 10년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5만 명이 넘는데, 그중 청년의 비중이 높다. 교회도, 목회자도, 신학교도 넘쳐나는데 여전히 다닐만한 교회가 없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다고 푸념한다. 믿는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듯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주훈 목사는 『루터의 재발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개신교 정신은 이 땅에 불량품 교회, 불량품 목사, 불량품 신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며,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바른 정신의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일구기를 꿈꾸는 것이다. 소비자가 똑똑해야 하듯, 신자 스스로 똑똑해져야 한다. 이것이 만인사제적이다.

16세기 부패가 절정에 달하던 시대, 교회는 권위를 붙잡기 위해 말씀에 왜곡시켰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의 왜곡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깨어 있던 사람들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지금 우리 역시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끝났지만, 개혁이란 시각에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복음을 구했지만, 지금은 거짓 종교, 자유주의 신학, 이단과 사이비 종교, 사기꾼 같은 복음주의자로부터 복음을 구출해야 한다. 개혁정신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이다. 하지만 부사 오직에 너무 경직되어선 안 된다. 성경공부의 목적이 본문과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듯이, 오직으로 시작하는 부사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제 성도들 자신이 복음으로 똑똑해져야 한다.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